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7월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49번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루가 19,1-10**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치자.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439번

MEMO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4. 우리 구원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당신의 '시간'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요한 12,27).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해 주기를 바라셨으나,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마태 26,40-41). 오직 요한만이 성모님과 충실한 여인들 곁에서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게쎄마니에서 겪으신 고통은 성금요일의 십자가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시간, 세상 구원의 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성찬례가 거행될 때마다, 예수님의 '시간', 곧 그분의 십자가와 현양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는 모든 사제는 마음으로 그곳, 그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는 관상과 선포의 말로 울려 퍼집니다. 교회는 성금요일 오후에 모든 이에게 이러한 초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 부활 시기 동안 이렇게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도다. 알렐루야."

5. 사제가 "신앙의 신비여!"라고 말하면, 신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러한 말들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난의 신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회 자신의 신비, 곧 교회는 성체성사에서 나왔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태어나 세상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지만, 교회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는 분명히 다락방의 성체성사 제정이었습니다. 교회의 토대와 근원은 파스카 성삼일 전체이지만, 이것이 이른바 영원히 통합되고 예시되고 집약되는 것은 성체성사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에 성체성사를 주심으로써 교회에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현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성삼일과 세기의 흐름 사이에서 신비로운 '시간의 단일성'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면 우리는 깊은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파스카 사건과 수세기 동안 그 신비를 현존시켜 온 성체성사에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역사상의 모든 이를 끌어안는 참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성찬례를 거행하고자 모인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놀라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찬례를 거행하는 집전자는 더욱 이러한 놀라움에 가득 찹니다. 성품성사에서 받은 권위로 축성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의 잔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제이지만, 그는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의 뜻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느 시대이든 교회 안에서 당신의 사제직에 교역자로 참여하는 모든 사제가 이 말을 되풀이하기를 바라십니다.

6. 저는 제가 대희년의 유산으로 교회에 남긴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와 성모님께 관한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Rosarium Virginis Mariae)에 이어 이 회칙을 발표함으로써 성체성사의 이러한 '경이로움'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제삼천년기가 시작될 때 제가 교회에 새 복음화의 열정으로 역사의 바다에 깊이 뛰어들도록 권고하면서 교회 앞에 제시한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서 여러 현존 양식으로, 특히 당신의 몸과 피의 살아 있는 성사로써 당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이끌어 냅니다. 교회는 그분께 양식을 얻고 그분으로 빛을 얻습니다. 성체성사는 신앙의 신비이며 동시에 "빛의 신비"입니다. 교회가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어느 면에서 신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겪은 일을 다시 체험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루가 24,31).

<성서묵상>

주제 : "자캐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 루가 19,1~10 -

자캐오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만남을 그리고 있다. 이 만남의 체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송두리째 붙잡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만든다.

◈ 자캐오는 누구인가?

자캐오는 세리였고 부자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기를 원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자캐오는 구세주를 추구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구원을 향한 강한 꿈틀거림이 도사리고 있었고 변화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에게 더 이상 부(富)라는 것은 그 자신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 열망하며 구세주, 곧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던 것이다.

자캐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군중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의 *작은 키는 물론 신체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작음, 보잘 것 없음, 곧 한계를 상징해 준다.*** 그러니까 자캐오는 부자이긴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구세주를 찾는 인물인 것이다. 다른 이들은 그를 세관장으로 여겼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기에 한계가 있는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터였다.

자캐오는 자신의 한계에도 거기서 결코 주저앉지 않았고 예수님의 길을 앞질러 달려갔다. 그리고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그의 적극적인 자세를 드러내 준다.

그분이 지나갈 장소, 그분을 볼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찾은 것이다.

◈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분을 보기 위해서 자캐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 순간 그가 그분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자캐오를 보셨다. 그분의 눈길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캐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셨고 그의 열렬한 추구에 보심으로서 답변할 뿐이 아니라 말씀으로써도 답변하신다.

"자캐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머물 집, 내면의 집을 원하신다.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눈길에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그분의 눈길에 함께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머무시기를 원하신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신다.

자캐오는 주저하지 않고 내려와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초대에 얼른 문을 열어 드린 것이다.

자캐오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주님을 뵙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의 삶의 현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심을 깨닫는 순간이다.*** 이 충만한 기쁨의 상태에서 새로운 탄생을 체험하게 된다.

◈ 용서의 축제와 구원

하느님은 인간에게 기쁨을 선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적 평화를 주신다. 기쁨은 사실 전염성이 있다. 하지만 이 기쁨을 차단하는 마음들도 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문을 닫아 버리고는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모두 투덜거리며'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다니'하였다."**(7절)

이들의 눈은 투명하지 못해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행운과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나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할 때가 많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하면서 선입관을 갖고 남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투덜대던 사람들은 자캐오의 변화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자캐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캐오가 아니었다. 그의 집에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는 부활한 것이다.

◈ 나눔

1. 자캐오의 한계성을 알았다면 나의 한계성은 무엇일까요?
2. 예수님을 만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3.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의 행운(선행)을 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요?

<겨자씨>

네 명의 아내를 둔 남자

네 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나 깨나 늘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둘째는 아주 힘겹게 얻은 아내입니다. 사람들과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면서 쟁취한 아내이니 만큼 사랑 또한 극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둘째는 든든하기 그지없는 성과도 같습니다.
셋째와 그는 특히 마음이 잘 맞아 늘 같이 어울려 다니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넷째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늘 하녀 취급을 받았으며,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의 뜻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어느 때 그가 머나먼 나라로 떠나게 되어
첫째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냉정히 거절합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둘째에게 가자고 했지만 둘째 역시 거절합니다. 첫째도 안 따라가는데 자기가 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셋째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셋째는 말합니다. "성문 밖까지 배웅해 줄 수는 있지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넷째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넷째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넷째 부인만을 데리고 머나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머나먼 나라"는 저승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살면서 아내처럼 버릴 수 없는 네 가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내는 ***육체***를 비유합니다. 육체가 곧 나라고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지만 죽게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둘째 아내는 사람들과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면서 얻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든든하기가 성과 같았던 재물도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셋째 아내는 ***일가친척, 친구***들입니다. 마음이 맞아 늘 같이 어울려 다니던 이들도 문 밖까지는 따라와 주지만 끝까지 함께 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를 잊어버릴 것이니까요.
넷째 아내는 바로 ***마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별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궂은 일만 도맡아 하게 했지만 죽을 때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마음뿐입니다.

어두운 땅속 밑이든 서방정토든 지옥의 끓는 불 속이든 마음이 앞장서서 나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마음이 자주 다니던 길이
음습하고 추잡한 악행의 자갈길이었으면
늘 다니던 그 자갈길로 나를 데리고 갈 것이고

선과 덕을 쌓으며 걸어가던 길이 밝고 환한 길이었으면
늘 다니던 그 환한 길로 나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가 죽고 난 뒤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